

【 해외금융 뉴스: 일본 】

AIG 일본 사업부 매각 급진전

□ 미국 정부 관리 하에서 경영재건 중인 AIG의 일본 사업부 매각 협상이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결 이후 일본 생명보험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그동안 AIG 일본 사업부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AIG에디슨생명과 AIG스타생명은 푸르덴셜에, AIG 산하 생명보험 사업부인 아리코(ALICO)와 기타 일본 자회사들은 메트라이프에 일괄 매각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음.
- 푸르덴셜이 AIG에디슨생명과 AIG스타생명을 인수할 경우 일본 사업부의 총 수입 보험료는 약 1조 8천억엔이 되어 일본 내 5위 규모가 되며, 최근 야마토생명을 인수해 영업력을 강화하려는 푸르덴셜의 다각화 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메트라이프는 아리코 인수로 일본 의료보험 및 사망보장보험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게 되는 한편, 현재 미츠이스미토모해상그룹과 제휴하고 있는 방카슈랑스사업도 이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아리코 합병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일부에서는 AIG 매각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AIG는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일찍부터 일본 사업부 매각을 시도했으나, 인수 유력 회사들이 금융불안으로 자신들의 재무상태도 악화되자 가격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매각 교섭이 중단된 사례가 많았음.
- 최근 금융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AIG가 곧바로 자회사 매각 가격을 인상하는 등 교섭 환경이 처음과 달라지고 있는 점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FujiSankei Business I, 7/20)